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스포트 리포트타주

취재 및 사진: 김세은
자료제공: 어나더세라믹



Material focus-Spot project-1편

‘another ceramic’

세라믹 디자이너

김하윤



Spot-Project

기획의도

종이나 도자기에서 출발하는 화이트 컬러 또는 가볍고 단순한 컬러 무드(color mood)가 점차 중요해진다. 글라스, 우드, 페이퍼 등의 원재료에 대한 컬러와 표면 효과, 라이팅의 접목 등으로 모든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는 최근동향. 이에 세라믹, 글라스, 페이퍼 소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공예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세라믹 디자이너 김하윤, 유리 공예가 이상민, 한지 조명 디자이너 김재성 3인을 선정해 원재료를 통해 도출하는 그들의 창의성을 엿보고 이를 통해 크라프트맨십에서 영향을 받는 디자인 산업분야의 내일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인터뷰 형식은 그들이 생각하는 소재와 디자인에 대한 스토리와 철학에 대하여 스폿 취재형식의 릴레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사진-1> the pleat, bloom



사진-2> hold the light

세라믹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공예적인 특성과 디자인적인 측면을 절충시킨 ‘another ceramic’의 김하윤 디자이너를 만나본다. 올해 들어 월드디자인마켓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는 9월에 있는 런던에서 열리는 ‘100%디자인 전’의 한국관 참여 디자이너로 선정되어 준비가 한창이다. 신사동 가로수 길에 위치한 작업실은 아기자기한 작품들과 소품들로 작은 리빙공간과 같이 꾸며져 있으며, 항상 음악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마치 그 주변에 즐비해 있는 작은 숭과 같은 인상을 준다. 국내에서는 세라믹 공예에 대한 인식이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극히 드물다. 모든 과정이 핸드메이드(handmade)로 제작 되는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가기에 쉽지 않은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만의 철학과 색(色)을 지닌 작업은 흙 자체의 소재가 지니는 물성과 디자인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며 그 자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사진-3> 작업실 내부 작품

Ceramic White

‘흙이란, 다루는 사람들은 그것의 물성에 매료되어 다른 재료와 타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흙이란, 타 재료와 달리 가소성만을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탄성한계가 작은 물질이다.’

이러한 성질들로 인해 제작과정도 매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아주 높은 온도에서 불과의 모험을 통해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 나올지 모르는 요변(窯變)을 경험한다.



사진-4> tention



사진-5> cups

흙의 섬세한 특성 때문에 표현하는데 있어서 긴 시간과 많은 한계가 따르지만, 표현해낸 결과물에 있어서는 다른 재료로 설명할 수 없는 도자기 특유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또한, 컬러에 있어서 화이트를 고집하는 이유는 작품의 형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태와 색은 도자기에서 뿐만 아니라 3차원의 조형물을 창조하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조형 요소이다. 이러한 조형 요소의 실제에 있어서, 복잡한 형태의 작품의 경우는 색상이 상대적으로 절제되기 마련이며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은 그 형태가 갖는 조형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형태 이상의 장식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화이트 컬러와 조형성을 위하여 유약처리를 하지 않는 표면 처리 방식을 고수 하고 있으며, 세라믹과 라이팅과의 접목으로 데이라이트(day-light)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사진-6> diner for tonight

작은 것에 대한 의미부여와 다(多)시점을 통한 오브제의 재해석

항상 길을 걸을 때나, 텔레비전을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소소한 것들도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담고 있는 역사성을 발견하며 영감을 얻는다. 그녀가 바라보는 오브제들은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이란 없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 담고 있는 심미성들을 찾는 재미를 찾게 되면 왜 그곳에 놓여져 있는지, 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녀의 사고는 '입체주의'에서 비롯된다. '다(多)시점'을 통해 대상의 형태 및 공간 속에 그것이 놓여있는 상태를 '다시 제시' 함으로써 여러 각도에서 바라봄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 반복과 해체,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 오브제를 사용하여 기성관념을 부정하고 그 단면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이 그녀의 작업의 동기를 유발한다.



사진-7> spill milk from cup



사진-8> teaspoon-fork-teaspoon



사진-10> 작업실 내부 작품

세라믹 아트 – 친근한 오브제를 통해 일상생활 속으로...

소재의 발견에 대한 동기는 아주 원초적인 이유로 세라믹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흙이 가지고 있는 물성과 아주 높은 온도의 불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재 탄생되는 도자기는 형태적인 면과, 크기, 설치에서 타 재료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굳이 같은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다른 재료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도자기로 만들어 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도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특성인 ‘그릇(器)’을 차용하여 타 재료와 차별성을 두어, 세라믹오브제 표현을 극대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과 일상생활의 간격을 좁히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온 작품들은 접시나 주전자 포크 등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오브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세라믹 아트와 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확장에 대한 기대

그녀는 불과 3년 전 만해도 기능은 결여된 오브제작업만을 해왔고, 또한 갤러리에서만 전시해왔다.

전시를 하면서 매번 느꼈던 것은 작업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가장 노출되어진 곳이 어딜까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작업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장식적으로만 끝나지 않는 쓸 수 있는 오브제, 현대에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와 맞닿아 있으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디자인,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기성관념을 깨는 유머러스한 발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예적으로만 인식되어졌던 도자기에 대한 개념을 확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녀는 도자기가 가지는 독자적 특성인 '그릇(器)'의 재해석을 통해 도자디자인의 영역에서 확장된 범위의 쓰여지고, 보여지는 새로운 도자예술 세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약력

2004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졸업

現- 어나더세라믹 대표,
한국도자디자인협회 회원,
강남대학교 출강

수상

2008 서울신문사 서울현대도예공모전 입선
2005 세계도자비엔날레 조형부문 입선
200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입선
2005 서울신문사 서울현대도예공모전 입선
2005 대한민국현대도예공모전 입선
2004 Muammer Caki International Competition
특별상 (Turkey)

전시

2009 'New Craft'전 (갤러리 쌈지)
2009 ISCAEE KOREA 2009
(세계도자기엑스포 여주 세계도자관)
2009 월드디자인마켓 서울_SPRING (코엑스)
2009 '빛의 소울리에'전 (클래이아크 김해박물관)
2009 '1000개의 컵'전 (통인화랑)

*2001년부터 다수 전시